



#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에 따른 수익 인식기준 개선방향

2023년 9월

박진해



**I. IFRS17 도입 후 손익현황**

**II. CSM 상각기준 개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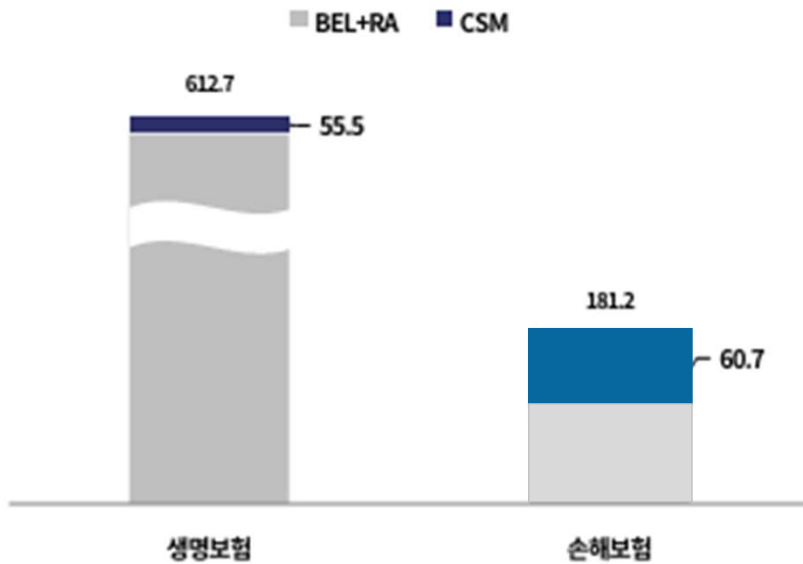
**III. 개선 방향**

# 보험계약마진 규모

CSM 규모 : 2022년말 기준, 116조원(생명보험 55조원, 손해보험 61조원)이고, 부채 대비 비중은 생명보험 9%, 손해보험 34% 수준

소급기간 : 생보사 평균 2.4년, 손보사 평균 3.8년 소급 산출 (전환시점 2022년초 기준)

생명, 손해보험 업권 CSM 비교



자료) 각 사 감사보고서, 한국기업평가 재구성

보험회사 CSM 관련 주요 통계량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국내사	
<b>소급기간</b>			
평균	2.4	2.3	3.8
최대값	5	4	5
최소값	0	0	0
<b>CSM/순보험부채</b>			
평균	<b>9.1%</b>	<b>8.7%</b>	<b>33.5%</b>
최대값	2153.8% (라이나)	24.2% (DB)	52.0% (메리츠)
최소값	1.2% (BNP파리바)	3.3% (KDB)	13.4% (하나)

# CSM 증감의 핵심 요인

I. IFRS17 도입 후 손익현황

2. CSM 증감의 핵심 요인

## 신계약 확보를 통한 증가 효과와 CSM 상각에 따른 감소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핵심 요인

\* 2023년 1사분기 실적의 경우, CF 추정치 변동에 따른 조정이 규모 대비 큰 회사 : 생보(KDB, 농협, 푸본현대), 손보(흥국)

### 2023년 1분기 CSM 변동

(단위: 억원)

생명보험													
구분	삼성	한화	신한	교보	농협	KB	동양	미래에셋	흥국	DB	ABL	KDB	푸본현대
기초CSM	107,487	96,679	69,249	46,378	42,896	31,201	23,742	19,795	19,138	15,524	7,018	5,239	1,401
신계약	8,460	5,716	2,208	3,648	1,572	1,225	1,763	572	740	1,239	604	387	74
이자부리	958	3,245	584	6,629	381	342	240	116	192	82	60	45	12
조정	- 526	- 6,373	- 96	- 5,104	1,866	- 569	- 240	105	- 409	127	95	- 833	- 55
CSM상각	- 3,337	- 2,142	- 1,668	- 1,046	- 980	- 683	- 649	- 520	- 477	- 323	- 227	- 111	- 41
기말CSM	113,043	97,125	70,277	50,507	45,735	31,516	24,857	20,069	19,183	16,649	7,550	4,727	1,392
증가율	5.2%	0.5%	1.5%	8.9%	6.6%	1.0%	4.7%	1.4%	0.2%	7.2%	7.6%	-9.8%	-0.7%

손해보험										
구분	삼성	DB	메리츠	현대	KB	한화	흥국	농협	롯데	
기초CSM	122,013	118,270	100,384	88,281	79,452	37,278	22,145	21,060	18,005	
신계약	6,783	6,859	4,283	4,947	4,152	1,333	665	818	1,551	
이자부리	880	831	708	654	654	331	205	212	183	
조정	- 2,414	- 2,702	- 2,596	- 2,509	- 389	- 849	- 969	- 179	- 379	
CSM상각	- 3,760	- 3,295	- 2,746	- 2,163	- 1,971	- 945	- 479	- 605	- 410	
기말CSM	123,501	119,964	100,033	89,209	81,898	37,148	21,567	21,307	18,949	
증가율	1.2%	1.4%	-0.3%	1.1%	3.1%	-0.3%	-2.6%	1.2%	5.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기업평가 재구성

# CSM 증감의 핵심 요인

## 2023년 1사분기 CSM 상각률(상각액/상각전CSM)은 평균 2.4~2.6% 수준

\* 생보사는 삼성, ABL, 푸본현대, 손보사는 삼성, 농협이 높은 상각률을 보임

\*\* 특정 손보사 연간 상각률 추정치와 비교해 보면, 1사분기 상각률 수준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

### 생명보험회사 상각률

(단위: 억원)

구분	기초CSM	상각전CSM	CSM상각	상각률
삼성	107,487	116,379	- 3,337	-2.9%
한화	96,679	99,267	- 2,142	-2.2%
신한	69,249	71,945	- 1,668	-2.3%
교보	46,378	51,551	- 1,046	-2.0%
농협	42,896	46,715	- 980	-2.1%
KB	31,201	32,199	- 683	-2.1%
동양	23,742	25,505	- 649	-2.5%
미래에셋	19,795	20,588	- 520	-2.5%
흥국	19,138	19,661	- 477	-2.4%
DB	15,524	16,972	- 323	-1.9%
ABL	7,018	7,777	- 227	-2.9%
KDB	5,239	4,838	- 111	-2.3%
푸본현대	1,401	1,432	- 41	-2.9%

### 손해보험회사 상각률

(단위: 억원)

구분	기초CSM	상각전CSM	CSM상각	상각률
삼성	122,013	127,262	- 3,760	-3.0%
DB	118,270	123,258	- 3,295	-2.7%
메리츠	100,384	102,779	- 2,746	-2.7%
현대	88,281	91,373	- 2,163	-2.4%
KB	79,452	83,869	- 1,971	-2.4%
한화	37,278	38,093	- 945	-2.5%
흥국	22,145	22,046	- 479	-2.2%
농협	21,060	21,911	- 605	-2.8%
롯데	18,005	19,360	- 410	-2.1%

상각전CSM = 기시CSM+신계약+이자부리+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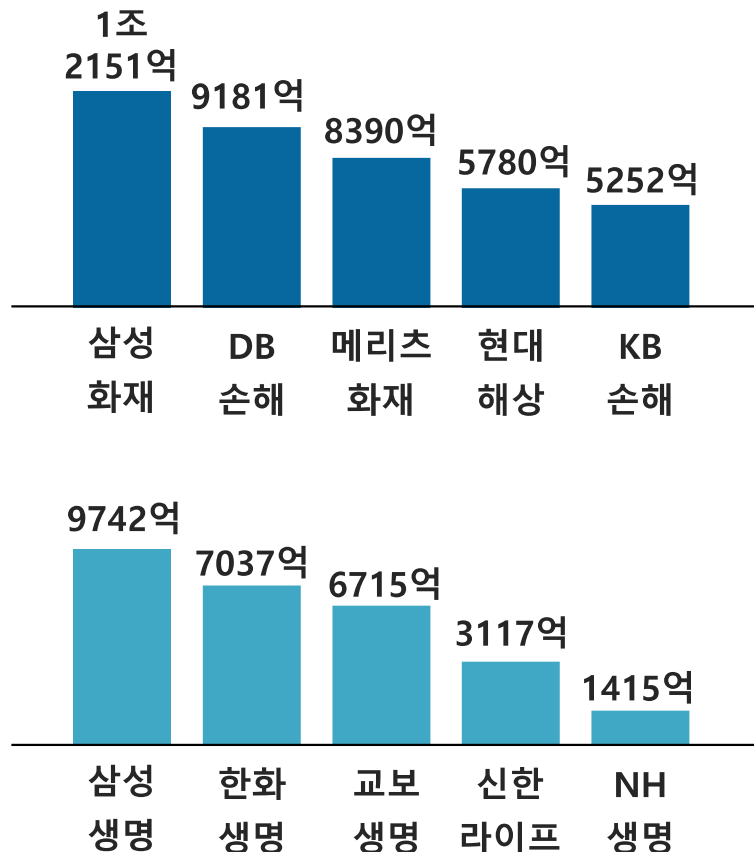
# 손익 구성요소의 변화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약 9조원) 시현하여,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

\* 2022년 순이익 기준으로, 생보업계는 전년대비 12%, 손보업계는 50% 증가

\*\* 보험손익은 대부분 CSM 상각에서 발생 (한화생명 자료 참조)

손보사, 생보사 상반기 순이익 비교 (연결기준)



한화생명 수지 구조

(단위: 억 원)

IFRS17/IFRS9		
구분		2023(03)
보험손익(A)		1,146
	CSM상각	2,142
일반/VFA적용	RA변동분	336
	예실차	-641
보험료배분접근법손익		-74
기타		-617
투자손익(B)		3,495
투자영업손익		18,969
보험금융손익		-15,473
영업이익(A+B)		4,641
영업외손익		2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663
당기순이익		3,569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 IFRS17 도입 후 손익현황

II. CSM 상각기준 개선 필요성

III. 개선 방향

# 할인율 개선사항

## Ⅱ. CSM 상각기준 개선 필요성

### 1. 할인율 현실화 이슈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되도록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023.8.30 공시)

\* 現 할인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현실적인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설정

할인요소		문제점	개선방안
최종관찰만기		• 최종관찰만기 차이로 자산·부채의 할인율 곡선이 상이하여 ALM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시장의 실거래 국채 물량 등 고려한 <b>최종관찰만기 확대</b> (20년→30년)
장기선도금리		• '24년 장기선도금리(4.65%)가 실질 금리(4.20%)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출	• 연간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 <b>한도 개선</b> (0.15%p 고정 → 실제 금리수준에 따라 0~0.25%p 차등 적용)
유동성프리미엄	개인대출	• 개인대출 위험스프레드는 안정적인 특성이 있으나, 회사채 등급으로 매핑하여 변동성 심화	• 채권신용등급을 차용(등급 매핑)하는 방식 대신 신규 <b>대출금리를 이용하여 유동성프리미엄 직접 산출</b>
	특수금융	• 자산평가와 부채평가 시의 위험스프레드 산출방식이 불일치	• 유동성프리미엄의 위험스프레드를 <b>자산평가 시 적용한 위험스프레드 산출방식과 일치</b>
	신용위험스프레드	• 최근 신용경색으로 위험스프레드가 증가하였으나, 신용위험스프레드가 불변하여 투자실패가 부채축소로 연결	• 채권시장 신용경색 등 외부 요인은 개별채권 <b>유동성프리미엄에 제외</b> 되도록 신용위험스프레드 산출방식 개선
	조정비율	• 자산·부채 간 현금흐름 불일치를 고려하지 않고, 자산에서 관찰된 유동성프리미엄을 모두 부채로 이전	• 자산·부채 간 현금흐름 <b>미스매칭</b> 특성을 유동성프리미엄 조정비율에 반영



# 할인율 개선사항의 단계적 적용방안

중요도가 높은 개선사항을 우선 시행하되, 매년 개선 영향이 유사해지도록 단계적(4년)으로 시행

\* 내년에 바로 적용되는 사항 : ①장기선도금리 조정폭 상향, ②개인대출 LP 산출방식, ③ 특수금융 LP 산출방식

\*\* 25년 이후 시행되는 개선사항은 직전년도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공할 예정

할인 요소		개 선 방 안	시행시기
최종관찰만기		• 최종관찰만기 확대(20년→30년)	25년~
장기선도금리		• 장기선도금리 조정폭 한도 상향(0.15%p→0.25%p)	24년~
유동성 프리미엄	개인대출	• 신규 대출금리를 직접 이용하여 산출	24년~
	특수금융	• 자산평가의 위험스프레드 산출방식과 일원화	24년~
	신용위험	• 신용위험스프레드에 "예상 외 신용손실" 포함	27년~
	조정비율	• 미스매칭에 대한 조정비율 개선	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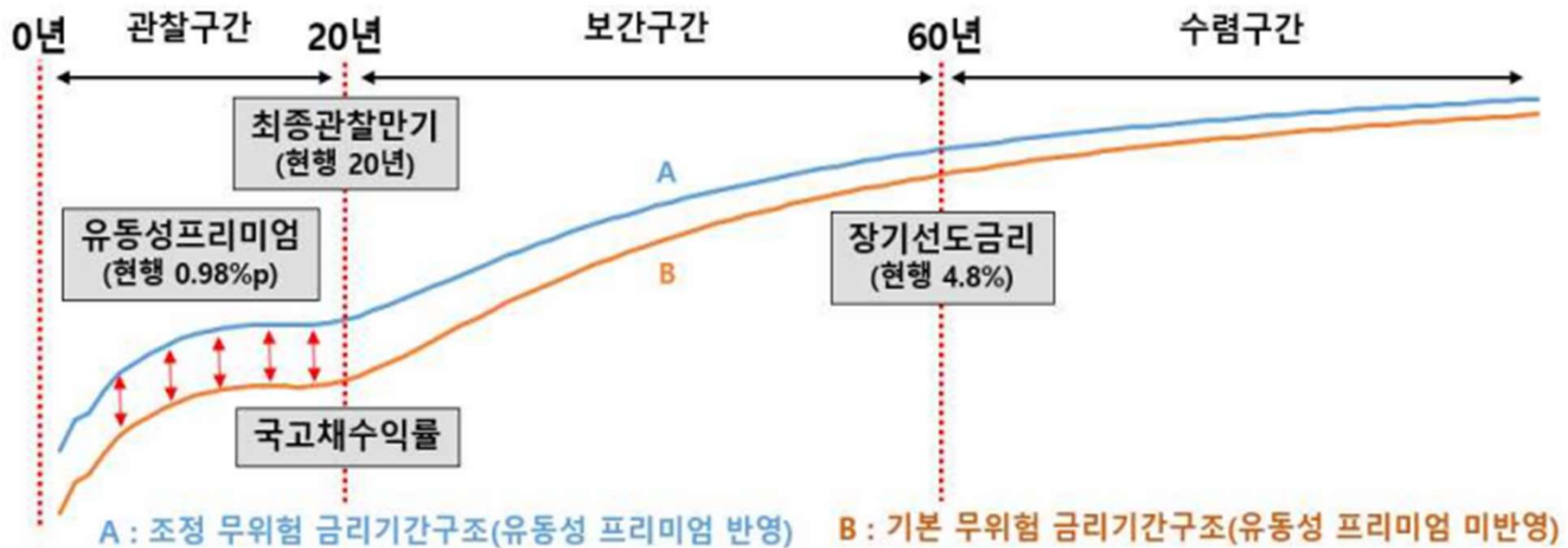
✓ 장기선도금리 > 실질 금리 : 보험료 납입시점에는 실제 이자율에 따라 현금유입액을 할인하고, 보험금 지급시기에는 높은 금리로 현금유출액을 할인 (BEL 과소/CSM 과다 인식)

\* 생명보험계약 CF의 경우, 20년 이하 단기에 현금유입(보험료)이 주로 발생하고 20년 이후 장기에 걸쳐 현금유출(보험금)이 발생

① 실질금리(장기선도 기준금리)

: 장기평균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CD금리)-소비자물가상승률] + 기대 물가상승률

✓ 최대 관찰기간 확대 및 유동성 프리미엄 감소 역시 CSM이 실질보다 과다 인식된 부분 해소



경과연도별 수익인식 금액 산출 시 보험계약자의 기대효익을 대표하는 '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의 크기를 계산할 때 현재가치로 환산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 (IFRS17 기준서 결론도출근거(BC) 문구 참조)

##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제6장)

가. 보험계약마진 중 경과연도별 수익인식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보험계약마진수익인식<sub>t</sub> =

$$\text{보험계약마진}_t \times \frac{\text{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sum_{k=0}^{n-t} \text{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k}}$$

(n = 잔여 현금흐름 프로젝트션기간)

다. 가목에서 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의 크기를 계산할 때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준서 결론 도출 근거 (BC 282)

IFRS17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보장단위와 기대 잔여보장단위에 동일하게 배분되도록 요구한다.

IFRS17은 동일한 배분을 결정하는 데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장단위의 예상 제공시기를 반영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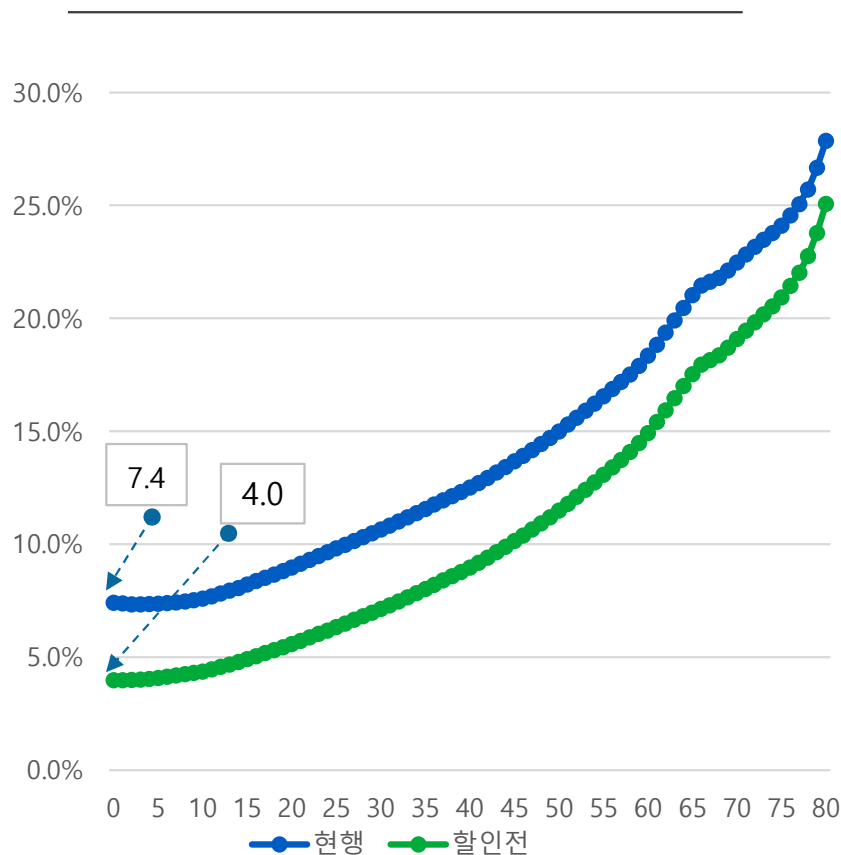
IASB는 이는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결론내렸다.

# 미래 보험계약서비스 제공량의 현가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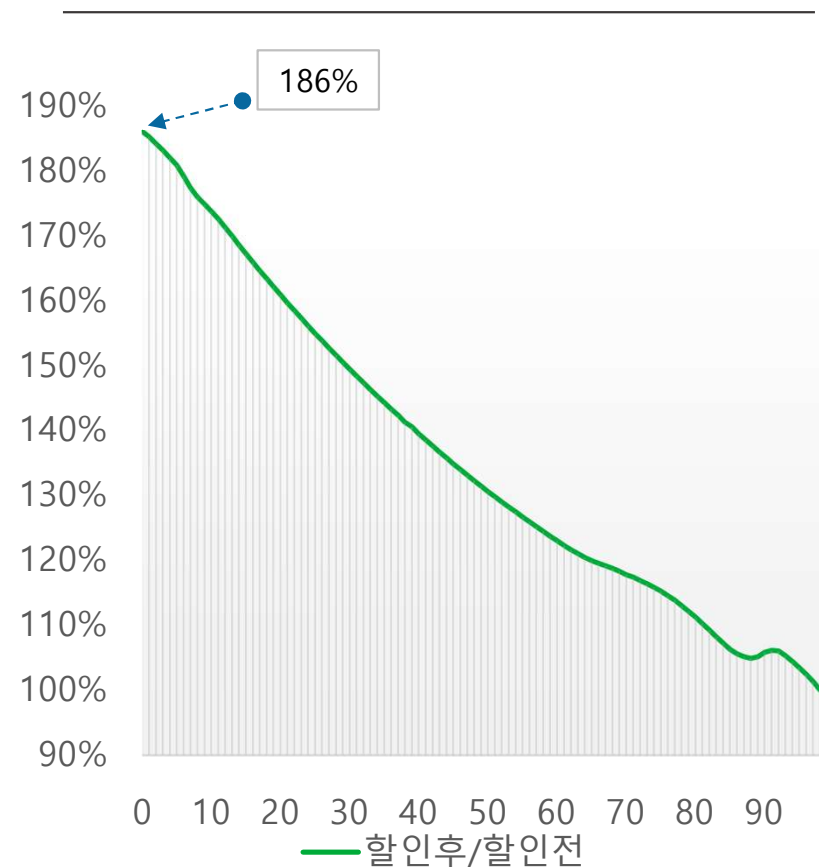
A社の 질병보험(보장단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 보험계약서비스 제공량을 현가로 환산할 경우, 초년도 상각률이 86% 증가

현가 환산 적용시, 당해연도 CSM 상각으로 인한 수익 인식이 증가함

보험기간별 상각률 (질병보험)



현가 환산 전/후 상각률 차이 (질병보험)



# 미래 보험계약서비스 제공량의 현가 환산

미래 보험계약서비스 현가 환산 적용으로 A社 전체의 상각률은 1.65배 증가하고, 상각 예상 기간은 10.7년에서 6.5년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임

초년도 상각률과 상각 예상기간 (계약서비스 현가 환산 전/후 비교)

상품군	CF	상각률			상각 예상기간 (년)		
	기간(년)	할인 後	할인 前	증가 (%)	할인 後	할인 前	감소 (년)
상해	100	11	5.7	93%	9.1	17.6	8.5
질병	100	7.4	4.0	86%	13.5	25.1	11.6
통합	91	7.1	4.1	73%	14.1	24.3	10.2
운전자	82	19.9	16.2	23%	5	6.2	1.2
재물	15	35.2	32.8	7%	2.8	3.1	0.3
저축	15	30.2	27.8	9%	3.3	3.6	0.3
연금	96	6.8	4.2	62%	14.6	24.1	9.5
전체		15.3	9.3	65%	6.5	10.7	4.2



IFRS17에서 CSM 상각률은 집합 수준에서 단일하게 결정되므로  
집합 내 모든 계약이 희석 효과 없이 동일 속도로 상각됨



I. IFRS17 도입 후 손익현황

II. CSM 상각기준 개선 필요성

III. 개선 방향

#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보험사 이익과 직결된 CSM 상각 기준은 회사의 자율적인 선택보다는, 제도 도입 초기 우려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현가 환산 미적용 방향**” 으로 일괄적인 적용이 필요함

☞ 감독회계(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개정

## CSM 早期 상각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

할인율 개선 前 이익 인식	영업경쟁 심화	계약자 간 형평성 침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할인율 현실화 이전에 과다 인식된 수익은 소급되지 않음   <b>제도 시행 초기에 기준을 제시할 필요</b>	<input checked="" type="checkbox"/> CSM 早期 소진으로 향후 신계약 유입 압력 ↑  <input checked="" type="checkbox"/> CSM이 큰 상품 위주의 무리한 시책으로 불완전판매 우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기 유지자의 기여 수익이 탈퇴/해약자보다 적음   <b>세대 간 합리적인 수익인식 배분</b>

보험회사도 제도 변경에 따른 이익 시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